

# “친노 패권주의가 망쳤다” 성토속 신당론 부상

공황상태 민주, 패배 책임론 대두

일부선 “판 갈아엎는 창조적 파괴 필요”

친노·386그룹 일선 퇴진론 거론되기도

민주통합당이 대선 패배에 따른 후폭풍에 직면했다.

당장, 별다른 수습책을 찾지 못한 채 패니 상황에 빠진 모습이다.

선대위 지도부는 20일 회의조차 생략한 채 오후 캠프 해단식 일정만 급히 잡았다.

당내에서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이해찬 전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지도부는 광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가 당의 전권을 갖고 있지만 대선 패배로 지도력을 밟화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문 후보가 비대위원장(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

고 비대위가 당의 진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당내에서는 대선 패배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친노 그룹의 패권주의에 대한 성토가 드세다. 의원총회 소집 요구도 나오고 있다. 대선 패배에 따른 후폭풍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의 한 의원은 “친노 패권주의가 대선을 망친 요인”이라며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절절한 반성없이 다시 친노가 당을 장악, 대선도 맡아버렸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광주 모 의원은 “감동적인 단일화 실패는 386 그룹과 친노 그룹의 결정

적 폐착”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진정성과 절실성이 부족했는데 그 배경에는 당내 패권주의가 작용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혁신과 환골탈태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친노 그룹과 386 그룹의 일선 퇴진론이 거론되고 있지만 비주류 그룹은 당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모 중진 의원은 “민주화 투쟁의 피와 눈물로 뱃지를 달았던 386 그룹은 늘 양자에 서면서 주류 층과의 연대에 나섰다”며 “당내 386 그룹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계개편 등 야권의 새 판짜기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쇄신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을 갈아엎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민주당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정당 체제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신당론’이 골자다.

대선 때 구축한 국민연대를 토대로 중도와 진보를 모두 한 대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당 청당론에 대한 회의론도 크다. 날이면 날마다 신당 청당을 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큰데다 정치공학적 접근으로는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반성과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타개책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전 후보가 정치개혁의 아이콘이자 새 정치의 대명사라는 점에서 민주당 혁신의 적임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안 전 후보가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분간 거리를 두면서 민주당 내부의 혁신 움직임 등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내 혁신을 등을 놓고 상당한 내용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의원직 유지하며 당 수습 주력

대표대행직은 내 놓을 가능성

문재인 향후 행보는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19일 밤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저의 실패이자 새 정치를 바리는 모든 분의 실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의원직 사퇴를 거론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가 의원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는 또 당직자들에게 당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후보가 대선 패배에도 정계에 남아 당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난달 안철수 전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당시 일괄 사퇴한 상황에서 자신까지 물려나면 지도력 부재로 당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문·재·인!’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지난 4·11 총선 당시 부산 사상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깃발을 풋았던 그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를 새누리당에 빼앗길 가능성이 큰 것도 이 같은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현재 당 대표대행직까지 갖고 있다. 일각에선 그가 향후 당을 잘 주스르고 범여권 연대 구축에 성공한다면 다시 한번 대권을 노려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다만, 당 내에서 책임론이 불거

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그가 당 대표대행직은 내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에서 패하면 가장 먼저 책임론이 불거지고 이를 대표해 책임질 사람이 필요해진다”며 “당 지도부가 모두 물려온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한데, 패한 후보가 자리를 지키고 있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민여러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2012. 12. 20(목) 14:00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101호



민주통합당 장병완·이용섭·임내현·박혜자 의원 등이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와 관련,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손, 독일서 암중모색 나설 듯

내년초 출국 6개월 머물러



크랭크인 에버트 재단 후원으로 자유베를린 대학에서 지내며 사회 복지와 통일·노동·환경·협동조합 등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그는 내년 1월 중으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전당대회 등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일단 한발 빠져서 아권의 새 판짜기 작업을 지켜보며 거취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아권 지각변동의 핵으로 떠오른 안 전 후보와 탈노 및 중도 노선을 맹비로 손을 잡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시민께 사죄… 혁신하겠다” 민주 광주선대위

민주통합당 광주시 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대선 패배와 관련, “정권교체와 새 정치 실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병완·이용섭·임내현·박혜자 의원들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80.4%라는 전국 최고의 득표율을 92%의 경이로운 득표율을 통해

보내주신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한다”며 “다시금 정치혁신과 정당혁신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강력한 요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약속

한 대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빼를 깎는 심정으로 혁신에 나설 것”이라며 “대선 역사상 처음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시민사회단체와도 협심탄화하게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의 값진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이기는 역사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남평 강변도시를  
주목하세요!



투자.. 지금이 기회!!

혁신도시 보다 저렴한 분양가!

광주시 남구와 공동학군!

대단위 아파트단지 분양예정!

관광호텔, 오피스텔 신축!

점포겸용 주택4층, 근생, 상업용지!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목욕탕  
매매

1만여 세대 독점

성업중인 최신시설

목욕탕, 높은 수익률

대지 2,480㎡(750평)

건물 4,460㎡(1350평)

용지

이상 가능

매매가

40억원

(감정가 58억원)

실준비금

20억원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011-642-7777

상담후 결정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 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염전 급 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얕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02)2-1772 011-642-2532

(광주은행 산본점, 대인동 소방서对面)

첨·저·한·독·일·인·의·장·한·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음향 이득효과가 큽니다.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빙영구적입니다.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함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 가능  
(제3자 보정기 환경)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상가·단독주택·원룸·모텔  
토지(대지/전/집/입)특수물건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의 내실분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 교육비 없음)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